손학규·김근태 컴백?… 술렁이는 민주당

재보선 전략공천 거론·정동영 복당 논의 가속

당 역학구도·내년 지방선거 공천 영향 불가피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의원 등 야권 거물들의 여의도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이 들썩이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의원 등 '잠룡(潛龍)'들에 대한 전략공천이 이뤄지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당내의 역학구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공천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의원 등이 전략공천 된다면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손학규 전 대표나 김근태 전 의원 등이 대중적 인지도나 정치 경력 등에서 정 대표를 능가한다는 점에서 정세균 대표 체제의 결속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 주류인 386 그룹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손 전 대표를 지지한 바 있다는 점에서 주류의 결속력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세균 대표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비주류는 민주연대의 핵심인 김근태 전 의원이 복귀한다면 상당한 결속력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열린우리당 시절 재야파의 수장이었던 김 전 의원 중심으로 비주류인 민주연대가 몸집을 불리고, 수도권 및 중도성향 의원들이 손 전 대표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당내 역학구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지금까진 주류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손 전 대표나 김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당내 상황에 따라선 조기 전당대회 요구와 같은 전면전이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의원 등 잠룡들의 귀환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 논의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외부 인사들을 전략공천하는 마당에 무소속 정 의원의 복당을 마냥 미루기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구 민주계인 한화갑 전 의원의 복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0월 재보선을 전후해 정 의원의 복당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당밖에 있었던 거물들의 귀환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정치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내년 전당대회에서 대표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주선, 박지원, 김효석 의원 등은 잠룡들과의 연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손학규, 정동영 후보 진영 등으로 나뉘었던 지역 국회의원들도 당내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잠룡들의 국회 귀환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예비 후보군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의원 등이 민주당에 복귀한다면 당내 역학구도는 요동칠 전망"이라며 "특히, 이들의 귀환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천정배의 민생포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발대식에 이어 14일 천안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목포, 대구, 인천 등 전국을 17일 동안 포장마차를 끌고 돌며 민생을 탐방한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박근혜 회동 무슨 대화 나눌까

선거제·재보선 공천 화제될 듯

16개월만에 독대… 해빙무드 조성 여부 미지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오는 16일 청와대 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지난 8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특사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럽 4개국을 순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며 독대가 이뤄진다면 지난해 5월10일 이후 16개월 만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사단 일행과 티타임을 가진 뒤 박 전 대표와 독대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회동을 계기로 냉랭했던 두 사람 사이에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유럽특사 제의를 받아들인데 이어 친박(친 박근혜) 계인 최경환 의원이 최근의 개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최근 중도 실용으로 지지율이 오르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만큼 박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총리지명 등 개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개헌이나 행정체제 및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이 일정 부분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10월 재·보선 공천을 앞두고 이번 회동은 여권 내부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MJ, 대권주자 이미지 관리하나

친서민 행보 주력 … 재계와는 '거리두기'

한나라당 정몽준(MJ)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유독 재계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 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 확답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공문에서 경제회생 방안 및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재계간 의견교환및 상설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회동을 제안하면서 먼저 1단계로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당 3역과 경제5단체장간 접촉을 하고, 추후 2단계로 당3역과 전경련 회장단간 회동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13일 "정 대표 취임 이후 전경련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면서 "그러나 재계 회동이 우선순위에 잡혀 있지 않으며, 당분간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재벌 출신인 정 대표가 처음부터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 그에게 붙어 다니는 재벌 내지 현대가(家)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이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치에도 불구,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재계에 대한 비판여론도 재계와 접촉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정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취임 축하난을 보내준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한-호주 축구경기 때는 경기장을 찾은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질·도덕성 검증" "野 정치공세 말라"

청문회 앞둔 정치권 주도권 싸움 치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철저한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을 벼르면서 이미 공격을 시작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폭로성 의혹제기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어 가장 큰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미 ▲병역면제 ▲교수 재직시 기업체 고문 겸직 ▲논문 이중게재 등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 66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정 후보자는 68년 독자라는 이유로 한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한 서울대 교수 재직시인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맡았다. 겸직허가 절차 없이 기업체 고문직은 맡은 것은 불법이며, 고문 소득 6천여만원에 대한 합산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최경환 지경장관 후보자=야당은 이미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천600만~1억8천만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실무자가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타 후보자=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백 후보자가 한 학회지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게재하면서 자신을 공동저자로 올렸고, 그 결과를 연구업적으로 등재했다"며 백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병완 "신당, 민주당과 통합 고려 안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씨는 13일 '10·28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민주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가칭)국민참여정당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낮 이병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강릉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정당은 12월에 창당할 계획인 만큼 아직 법적으로 정당 인정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강릉은 아직 후보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경남 양산은 (민주당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우리가 많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양산의 경우 친노(親盧·친 노무현) 인사들이 송 전 비서관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나 후원회장을 나눠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신당을 창당하더라고 민주당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DNA)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강릉문화원 공연장에서 '새로운 도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어 국민참여정당이 오는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뒤 연내에 신당을 창당,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